

사회

‘사유지내 도로’ 곳곳 실랑이

도시가스관 설치·아스팔트 포장 민원 잇따라

광주 수천곳...구청선 “매입할 능력없다” 방치

#1. 광주시 남구 방림2동 5통 주민들은 20년째 폭 4m, 연장 80m의 콘크리트 골목길을 아스팔트로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도로는 매년 선거철만 다가오면 후보자들이 포장해 주겠다고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지만 남구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골목길이 사유지 내 도로로 소유주가 매입을 요구하면서 포장 허가를 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주민들이 사유지 골목길에 도시가스관을 설치하려다가 소유주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2. 올해 초 광주시 북구 양산동 동남아파트 인근 주민 40가구는 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하려다가 연장 200m의 도로를 소유한 소유주의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주민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시공사와 협의해 땅 소유주에게 점용료를 주기로 결정했다. 사유지 내 개설된 ‘현황도로’(자연 발생적으로 생겨거나 지적도상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토지가 개인 소유

인 도로)로 인해 지속적인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구청에 토지를 매입해 달라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구는 이런 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매입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13일 광주시 5개 자치구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유지 내 현황도로는 수천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이 주택가 인근 골목길로, 아스팔트 대신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사실상 현황도로에 해당된다는 것이 자치구의 설명이다. 이 같은 도로는 도시계획이 완전히 수립되기 전에 도시가 발전하면서 주택가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도시가 발전하고 곳곳에서 포장공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도로에 대한 포장이 진행돼야 하지만 일부 소유주들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해당 도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소유주들은 자치구에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 소유주가 포장을 반대하는 이유도 도로가 편리해지면 주민들의 민원이 사라지고 자치구가 매입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자치구의 생각이다. 그러나 자치구는 수백 곳에 이르는 토지를 매입할 만한 재정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에 대지도 포함돼 있어 보상 금액도 예상 밖으로 높기 때문이다. 몇 해전에는 광주시 서구에서 도로 소유자가 겨우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남기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북구 관계자는 “최근에는 이 같은 도로를 전문적으로 매입해 도시가스관 매립, 도로 포장 등의 공사를 진행할 때 점용료 등을 요구하는 ‘꾼’도 등장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태풍 ‘산바’ 북상...16일 광주·전남 영향권

제16호 태풍 ‘산바’(SANBA)가 16일 광주·전남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바는 세력이 점차 커지고 있어 제15호 태풍 ‘볼라벤’(BOLAVEN)과 비슷한 위력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산바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필리핀 마닐라 동쪽 약 920km 해상에서 시속 16km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산바는 중심기압 950hPa에 최대풍속 43m/s, 강풍반경 450km로 ‘강중 중형’ 태풍이다. 기상청은 산바가 광주·전남지역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6일 오후에는 중심기압 935hPa에 최대풍속 48m/s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 강풍반경이 520km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한편 광주·전남지역은 15일 차차 흐려져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1000만원 이하 금융 사기’ 최다

횡령·배임 등 전과자 동종범죄 재범률 높아

광주경찰, 고소·고발사건 분석 소액이 4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2000만원 이하(23.3%), 5000만원 이하(12.9%), 1억원 이하(9.9%), 1억원 이상(5.8%) 순이었다. 죄명별로는 사기(59%), 횡령(6.7%), 배임(0.5%) 순이었으며, 직업별로는 자영업(20%), 무직(19%), 회사원(11%), 주부(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의 전과가 있는 피고소인 중 다시 고소있을 당하는 비율이 84.7%를 차지하고 있어 동종범죄 재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기 사건은 관련 전과가 있는 남성이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벌린 후 갓지 않으면서 빚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경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사건은 모두 94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건이 늘었다. 이 가운데 9793건이 처리됐다. 고소·고발사건 가운데 금전 거래 관련이 39.8%를 차지했다. 전체 피해금액 중 1000만원 이하의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for various cities, a table of weather forecasts for different regions, and a section for the next few days' weather.

통일항아리 자전거 대장정 오늘 광주로

전 국민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자전거 행진이 13일 대전 엑스포시민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시작됐다.

통일부는 오는 20일까지 (사)통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공동으로 전국 12개 주요 도시 순회 ‘통일항아리 국토대장정’을 진행...

행한다. 이번 행사는 전 국민과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통일의지를 결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14일 전주와 광주(전남대 후문 앞)에 이어 창원, 부산, 삼척, 강릉, 춘천, 서울, 파주 등 각 지역을 차례로 방문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남대 총장 선거 13명 후보 등록 (Jeonnam University President Election) section listing candidates and their affiliations.

Modern Shinhan Card (현대신한카드)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card and a red gift bag, with text describing benefits and terms.

Hyundai Department Store (현대백화점) advertisement for a card purchase promotion, detailing rewards and terms for different card types.

8th Department Store Highlight (8층 대행사장 하이라이트) advertisement for outdoor gear, featuring a woman in a red jacket and listing various items and prices.